

## 지롤라모 사바나롤라

(Girolamo Savonarola, 1452-1498)



이상규(개혁주의학술원 원장, 역사신학)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로 흔히 4사람을 꼽고 있다. 이 점은 서구교회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그들이 12세기의 프랑스의 개혁자인 피터 왈도(발데스), 14세기 영국의 개혁자 위클리프, 15세기의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 그리고 15세기 말의 이탈리아의 사바나롤라이다.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독일 보름스에 가면 에른스트 리첼(Ernst Rietschel)에 의해 세계 루터파교회 후원으로 1868년 건립된 루터 기념상이 있다. 그런데 루터 동상 아래에 좌상으로 4사람의 동상이 있다. 그 네 사람이 바로 피터 왈도,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사바나롤라이다. 루터 동상 주변에 이들의 좌상을 세운 것은 이들이 종교개혁 이전의 대표적 개혁자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네 인물 중 앞의 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미 소개했으므로 이번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도미니쿠도사이자 개혁자였던 사바나롤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바나롤라는 루터가 출생하기 약 30년 전인 1452년 이탈리아 페라라(Ferrara)에서 출생했다. 이탈리아 북부지방의 도시 페라라는 르네상스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탈리아인으로써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트라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의 저서를 접하게 되었고 교회 개혁의 이상을 배우게 되었다. 페트라카는 흔히 ‘첫 현대인’이라고 불리는데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명명한 인물이자,

아비뇽교황들을 프랑스의 포로라고 비꼬아 말했던 인물이다. 사바나롤라는 처음에는 의사가 되고자 했으나 1474년 비밀리 집을 떠나 이탈리아 중 북지방 도시인 볼로냐로 가서 도미니크 수도원에 입단했다. 그 이후 이탈리아 북부지방 여러 도시에서 활동했다. 1490년에는 프로렌스라고 불리는 피렌체(Firenze)에 정착하였고, 이곳의 메디치의 로렌조(Lorenzo de Medici)가 설립한 산 마르코 수도원에서 설교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는 개혁자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한 인물로서 곧 설교자로 신망을 얻었다. 특히 요한1서와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 감동을 주었고, 1491년 사순절에는 피렌체의 가장 큰 성당의 설교자로 초청될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는 당시의 사회악을 고발하고 피렌체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특히 귀족 성직자들의 향락과 사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이 교회의 위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성직자들의 타락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브레스카의 아놀드와 동일했다. 사바나롤라 자신은 사도적 청빈을 실천하였다. 회개치 않는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1492년에는 북쪽으로부터 주님의 칼이 와서 피렌체를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에 대해 격분한 피렌체의 통치자 메디치의 로렌조는 사바나롤라를 공격할 설교가를 고용할 정도였고, 그 설교가는 사바나롤라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다. 그러나 피렌체 시민들은 사바나롤라를 지지함으로써 이런 시도는 무위로 끝났다. 얼마 후 사바나롤라는 성 누가 수도원의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도원 내에 개혁수도회를 만들어 개혁을 시작하여 수도원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후원하였다. 그가 추진한 개혁이란 수도원 본래의 정신인 청빈을 실천하는 일이었고 이를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일이었다. 점차 그의 영향력은 확대되었다. 심지어 사바나롤라를 미워하여 제거하고자 했던 로렌조마저도 임종시에 자신의 최후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왕 샤를8세(Charles VIII, 1470-1498)가 2만 5천명(이중 8천명은 스위스 용병이었다)의 군사를 동원하여 이탈리아를 침공했다. 군대의 깃발에는 Voluntas Dei, missus a Deo, 곧 '신의 의지, 신이 보낸자'라는 구호가 적혀있었다. 샤를의 군대는 반도를 가로질러 1495년 2월 22일 나폴리에 도착했다. 나폴리왕국에 대한 영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의도였다. 곧 나폴리를 점령하고 나폴리 왕국의 왕이 되었다. 프랑스 왕 찰스 8세는 남하하는 진로에 있던 피렌체로 진입했는데, 로렌조를 계승했던 피에르토 메디치(Pierto de Medici)는 군사적 대결이 무망하다고 보아 프랑스 왕에게 뇌물을 주고 전화를 막으려 했으나 피렌체 시민들은 이에 반대했다. 시민들의 신망을 잃은 피에르토는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사바나롤라에게 해결을 의뢰했다. 중재에 나선 사바나롤라는 프랑스군의 약탈을 막고 협상을 통해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되자 사바나롤라의 신망이 높아졌고,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았으나 피렌체의 실제적 지도자가 되었다. 사실 프랑스군이 침공해 왔을 때, 사바나롤라는 하나님을 프랑스 왕과 군대를 보냈다고 믿었다. 즉 샤를8세는 피렌체의 부패를 정화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라고 믿었다. 프랑스 군대가 피렌체의 죄인들을 축출하면, 도시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교회 재건을 위한 최적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피에르토가 떠나고 프랑스 군이 물러가자 사바나롤라는 피렌체를 공화정부형태로 개편하고 조세개혁을 단행하고 도덕적 개혁을 추진했다. 교회는 교회가 소유한 금, 은 등 보석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그 도시를 수도원적인 금욕적인 도시로 바꾸어 갔다. 일종의 신정(神政) 공화국을 추진한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1496년 축제 때 행했던 '허영의 소각'(burnigs of vanities)이었다. 도시 중앙광장에 나무를 쌓아놓고 시민들이 가진 '허영'의 물건들을 불사르게 했다. 사치스런 의복, 도박기구, 화장품, 가발, 보석, 음란서적, 고가의 가구 등 엄청난 양을 불사르게 했다.

후일의 역사가는 이런 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독재적 독단적 발상이었다고 폄하한다. 사실 당시의 피렌체의 시민들도 사보나롤라의 엄격한 통치방식을 거부하고 반대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자 이런 부정적 심리는 심화되었다. 당시 교황 알렉산더6세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 동맹을 맺어 프랑스에 대항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바나롤라는 프랑스와의 동맹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피렌체의 입장에서 볼 때 교황의 의도가 더 좋은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 교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부유층 시민들은 사바나롤라와 그의 정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여론에 힘입어 교황은 사바나롤라를 궁지로 몰아갔다.

당시 교황이 알렉산더6세(Alexander VI, 1492-1503)였다. 교황 알렉산더6세는 금품으로 표를 매수한 인물로서 교황청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을 야기한 인물이었다.<sup>1)</sup> 콘클라베가 개최되었을 때 금과 패물이 가득찬 상자들이 추기경들의 궁으로 배달되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에게 표를 약속한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금품과 관식 수여의 대가로 그는 결국 1492년 8월 11일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고대의 위대한 장군의 이름을 따 알렉산더로 명명했다. 이때 그의 나이는 61세였다. 일곱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이를 숨기지 않았고, 무수한 애정 편력 또한 숨기지 않았던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교황이었을 만큼 그는 파렴치 했다. 그는 반노차 데 카타네이 라는 정부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들에게 권력과 금품을 남겨주었다. 추기경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독살을 지시하였고, 가족의 권력 강화를 위해 자기 딸을 세 번이나 결혼시키고, 추기경직을 경매방식으로 판매하기까지 했다. 특히 그는 여자를 즐겼다. 복잡한 여성편력에 대해 로마의 한 역사가는 이렇게 썼다. “마치 쇠 부스러기가 자석에 끌리듯이 그는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꼈다.”<sup>2)</sup> 금품 매수, 권력남용,

1)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 『교황들』 (동화출판사, 2009), 160.

2)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 168.

살인 교사, 부도덕, 간음, 사치, 향락에 빠졌던 ‘소름끼치는 교황’은 1503년 8월 18일 말라리아로 죽었다. 그의 시신은 끓아서 진물이 흘러내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악마가 그의 영혼을 데려갔다고 믿었을 정도였다.<sup>3)</sup>

이런 교황 알렉산더6세에 대해 사바나롤라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다. 사바나롤라는 청빈한 삶을 이상으로 가르치며 교황의 사치와 방종을 지적했다. 끝까지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도사로 남아 있던 그는 교회나 교황직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교황 개인의 부도덕을 지적했을 뿐이다. 불법에 익숙한 교황은 적절히 대처했다. 사바나롤라의 설교를 금지시키고 1495년에는 로마로 호출령을 내렸으나 건강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교황은 결국 그를 파문했다. 사바나롤라는 잠시 주저했으나 성직매매를 통해 교황이 된 알렉산더6세는 참된 교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황제와 국왕들에게 공의회를 소집하여 알렉산더6세의 불법성을 확증하려고 했다. 이 때 교황은 피렌체가 사바나롤라를 침묵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도시에 성무금지령을 내리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바나롤라에 대해 반감을 가졌던 반대자들은 1498년 4월 8일 산마르코수도원을 습격하고 사바나롤라와 두 수도사를 고소했다. 사바나롤라는 투옥되었고, 끝없는 심문과 고문이 이어졌다. 예언할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 예언을 했다고 정죄되었고, 거짓 고소와 조서가 위조되기도 했다. 사바나롤라는 이단자이자 이교자이며 거룩한 교회를 멸시한 자라는 이름으로 정죄되었다. 그는 교황권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 점이 루터와 다른 점이었다. 단지 소름끼치는 부도덕으로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교회를 염려했을 뿐이다. 교회 개혁을 외쳤으나 끝까지 로마 가톨릭교회의 일원으로 남아 있던 사바나롤라에게 한 가지 자비가 주어졌다면 교수형에 처한 후 화형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사바나롤라는 1498년 5월 23일 다른 2사람의 수사와 함께 피아차 델라 시그노리아(Piazza della signoria)로 끌려가 교수형을 당했다. 그 후 그의 시신은 채

3)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 186.

마르지 않는 장작더미 위에 던져져 다시 화형을 당했다. 이들에 대한 기억을 말소하기 위해 타고 남은 재는 아르노(Arno)강에 뿌려졌다.

사바나롤라는 4권으로 구성된 책을 남겨 주었다. 『십자가의 승리』(Triumph of the Cross)가 그것이다. 이 책은 후일 개혁지향적 인사들의 애독서가 되었다. 사바나롤라는 도미니크 수도사로서 금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다. 사치와 방종, 비도덕과 성직자들의 탈선을 비판하고 교회가 쇠신되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부도덕했던 알렉산더6세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를 잊게 하기 위해 그의 재를 강물에 뿌렸으나, 그의 자취는 역사 속에 남아 기억되는 인물로 남아 있다.